

전국 최초 시행 미래형 교육모델 '자치학교' 호응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시한 미래형 교육모델인 자치학교가 일선 학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올 자치학교를 운영한 용두중학교가 학생들과 함께 울릉도를 찾아 탐방학습을 했다.

용두중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시한 미래형 교육모델 '자치학교'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혁신학교, 연구학교와 같이 새로운 미래 학교 모델로 자리 잡을 지 주목된다.

자치학교란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실천하는 학교,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한 광주형 미래학교의 유형 중 하나다.

또 다른 유형인 혁신학교와 유사하게 학교급별, 규모별 1000만원부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하나의 주제 영역 범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자치학교의 주제영역은 △실력향상 △미래교육 △기후환경·생태 △교육복지 △세계시민 △다문화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 연계로 총 8개가 있으며 내년부터는 8개 영역 외에도 학교가 직접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자치학교 모델을 개발·기획한 까닭은 예산을 지원하는 혁신학교나 교원의 인사과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연구학교 외에도 각 학교나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려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 올해 유형 신설 학교 직접 교육과정·예산 운영 신청학교 107→140교로 늘어 "새로운 교육모델 구축해갈 것"

기 위해서다. 올해 운영한 자치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치학교 운영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107개교(원)에서 운영 중인 자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지난 9월 만족도를 조사 한 결과 정책 공감도 및 학교별



광주시교육청이 개최한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학교 워크숍' 광주시교육청 제공

운영 만족도에서 5점 만점에 각각 4.5점, 4.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85.1%가 자치학교에 계속 참여하길 희망했다.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내년 40개 학교가 참가해 140개 학교가 자치학교 운영에 함께한다. 올해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1일 '2023 성과 공유 및 2024 운영 방향 안내 워크숍'을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수환 진흥중학교 교사는 자치학교 운영성과 발표를 통해 "진흥중은 지역사회연계 분야 자치학교 운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점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행위 주체자들에게 자율과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게 요즘 행정 방식이다. 학교가 주인공이 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광주형 미래학교를 고안했다. 현장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자치학교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인 기자

2023 자치학교 우수사례

용두중, 독도·울릉도 탐방 프로그램 성과

세계시민 주제 자치학교 운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토론도

올해 자치학교 운영으로 학교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용두중학교(교장 김종미)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용두중은 자치학교 주제영역 중 '세계시민'을 꼽아 과제를 기획했다. 세계시민이라는 주제 안에서 용두중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6번에 해당하는 '평화'에서 착안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해를 위한 동북과 평화를 기원하는 독도기행을 과제로 잡았다.

역사·계기 교육의 현장인 독도와 울릉도를 탐방함으로써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시민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의의를 뒀다.

세계시민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학생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해 현장 감수성을 느끼고 지리와 기후, 생태,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좋은 기회로

작용한 것. 용두중은 독도와 같은 한일관계 이슈를 다루며 학생들에게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왜곡, 지난 8월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반발을 샀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정부의 대응 등을 탐구하고 토론하며 글로벌 감수성과 식견을 넓혀갔다.

용두중은 이번 자치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얻은 글로벌 감수성을 지속·확산시키기 위해 연관 사업을 지원받아 독도 3D·VR기행 부스를 설치했다. 독도를 다녀온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에 독도와 한반도 역사 및 정치 이슈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조은미 용두중 교사는 "내년 자치학교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세계시민 감수성을 길러 미래세대로서 글로벌 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알찬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내년 자치학교 40개교 참여...지역문제 관심분야 운영

2024 자치학교에 신규로 참여하는 학교가 내년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자치학교에 신규로 참여하는 학교는 총 40개교다.

그 중 광주제석초등학교(교장 오혜경)는 내년에 '기후환경생태'를 주제로 제석초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 남구 주월동 제석초를 둘러싼 제석산을 시작으로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프로그램에 통해 진행한다.

제석초는 '슬기로운 ECO 생활 실천 프로젝트'라는 메인 주제로 '제석초다람쥐, 딱따구리, 북극곰을 구하라!'는 세부 과제를 마련해 연중으로 시행한다.

분기별로 제석산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텃밭·화단 가꾸기, 잔반 없는 날 등 친환경 콘텐츠를 진행한다. 이어 지역사회와 연계해 제석초

제석초, 기후환경 생태 추진 성덕고, 혁신학교→신규참여 "운영 성과 바탕 효율적 진행"

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ECO한마음 친환경 경실천 페스티벌을 열어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친환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우 제석초 교육연구부장은 "지역의 가뭄, 폭우와 장마, 미세먼지 등 현실이 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과 제도 웨이스트와 기후행동 실천이 중요해졌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서면서 제석산을 둘러싼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상했다"고 말했다.

성덕고등학교(교장 백기상)는 12년간 혁신학교 운영을 마치고 내년도 자치학교에 신규 참여한다.

신규 참여 학교 대부분은 혁신·연구학교가 아닌 곳들이지만 성덕고는 최근까지만 해도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혁신학교 재지정을 두고 진행된 교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응답이 나오지 않아 혁신학교 재지정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된 자치학교가 혁신학교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띠고 있으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운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성덕고는 혁신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자치'라는 주제로 자치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대근 성덕고 교감은 "혁신학교 때보다 좀 더 간소화된 기준 속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혁신학교에서 진행하던 주제 그대로 내년도 자치학교에서 효율적이면서도 부담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동아여고, 학생 진로·진학 맞춤형 운영

'실력향상' 주제로 교육 전개 공강·수능 후 등 활용해 진행

동아여자고등학교(교장 김영수)가 올해 '자치학교' 사업에 관한 성과를 밝혔다.

동아여고는 '광주형 미래학교' 중 하나인 '자치학교' 사업의 '실력향상'에 신청해 총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했다.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동아여고는 지난 2월 신학기 준비 기간에 맞춰 학교 융합교육부를 중심으로 사업 홍보와 교사의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년별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교과별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소그룹 학생 자치활동 지원' 3개의 대주제 중심으로 운영프로그램 진행이 이뤄졌다.

학년별 맞춤형 입시설명회 개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험·실습 교과목의 교구 지원, 활동형 동아리 운영 등이 진행

됐다. 그 결과 학생 참여 수업의 활성화, 학생 자치활동 강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현 1학년은 192학점 이수로 인해 주 2시간의 공강 시간이 생겨 다양한 학생 활동할 수 있었다. 이에 동아여고 1학년은 다양한 학년 자치회(학습지원부, 최소한의 약속 지원부, 책 읽는 교실 지원부, 교육과정 지원부, 따뜻한 마음 지원부 등)를 구성해 자율적 학습 점검 활동, 모의재판 운영 및 릴레이 독서 활동 후 발표회 운영, 문예 창작 활동 후 시집 발간, 뜨개질 시간 운영 후 기부활동 등으로 활용했다.

3학년에서는 수능 후 교육 활동을 위해 해당 사업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수능을 마치고 지친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됐다.

동아여고 과학탐구동아리가 융합교육부 주관 자치학교 여름캠프를 운영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 탐구활동을 통한 융합교육'을 진행했다.

김혜인 기자